

공해(公海)에 대한 국가지명 사용에 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Alexei Murphy
(미국 오레곤대학 교수)

전통적으로 지도는 실제의 객관적인 표현물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 지도는 중립적이고 가치판단에서 자유로운 표현물이 아니며, 사회적·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지명 표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 즉 지도에 표기되는 지명을 선택할 때, 특정한 역사적·지리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공해에 대한 국가지명 사용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명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관행과 그것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고찰하겠다.

국가지명을 따라 공해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분쟁이 일어난 경우는 많지 않다. 세계 각 지역의 공해를 분쟁이 일어난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분쟁의 수준은 그 지역의 지정학적, 지리-역사적 상황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관관계는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은 현재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The Persian / Arabian Gulf, The Sea of Japan / East Sea, South China Sea / Bien Dong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국가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도제작자·학자·정책 입안자들은 분쟁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다른 지명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도 개방적이어야 한다.